

매하구시 '폐기물 없는 도시' 건설 전면 추진



매하구시는 '폐기물 없는 도시'(无废城市, 이하 '무폐도시') 건설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고체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처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성의 '무폐도시' 건설시범사업의 결핵과 포치에 따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하게 배치하며 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의 친환경 전환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매하구시는 사업을 질서있게 추진하기 위해 '무폐도시' 건설사업 지도소조와 판공실을 설립하고 '무폐도시' 등급보장사업제도와 협의사업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무폐도시' 건설사업을 시정부의 실적 심사에 포함시켰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선전매체를 리용하여 '무폐도시' 건설의 중요한 의의를 전방위적으로 선전하고 여러 경로로 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여 '무폐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인민대중의 인식도와 참여도를 확실하게 향상시켰다.

조직지도 및 부문간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무폐도시' 건설시범사업을 시정부의 년도 중점 사업임무로 삼고 부문간의 협력연계를 강화하며 시스템 집성을 강화하고 종합효익을 발휘하며 힘을 합쳐 제반 사업임무의 실적을 추진했다. 현재 매하구시는 이미 고체폐기물 관리 체제와 기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분야, 부문, 지역을 아우르는 고체폐기물 관리기제를 구

축하고 건전히 하여 고체폐기물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관리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무폐세포' 건설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현재 매하구시 해동호풍경구는 '무폐풍경구' 건설을, 매하구시제 4 유치원은 '무폐교정' 건립을, 동방밀라노주택단지 '무폐주택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무폐세포' 건설사업도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대중(大宗) 공업 고체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탄광구역에 역사적으로 남겨진 석탄버럭은 이미 전부 제거되고 전부 종합리용되었다. 열공급발전 기업에서 생기는 분말석탄재는 전부 건축재료 생산기업에 보내져 세멘트, 무소벽돌(免烧砖) 등 건축재료로 생산되어 자원화 리용을 실현하고 대중공업 고체폐기물의 종합리용을 실현했다.

의료폐기물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매하구시 의료폐기물 규범화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위생감독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했으며 관리방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각급, 각 부류의 의료기관들에 요구했다. 36개 의료위생기관과 의료폐기물 처분 계약을 체결했다. 의료폐기물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강화했다. 의료위생기구 재활용품 회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23년 의료위생기구 재활용품 회수율을 100%에 도

달시켰다.

생활쓰레기분류 체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매하구시의 345개 주민단지의 쓰레기통에 모두 쓰레기 4가지 분류 표식을 게시했으며 도시구역 주민단지 쓰레기분류 피복률은 100%에 달한다. 쓰레기분류 선전교양을 조직, 전개하고 전 시 범위내에서 '당건설로 생활쓰레기분류 선도 추진' 주제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교육부문과 연합하여 교정 생활쓰레기분류 지식 보급과 상호작용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쓰레기분류사업을 교실 수업에 포함시켰다. 5개 가구의 18개 사회구역에 협조하여 주민 쓰레기분류 자치제도를 제정했다. 2023년 매하구시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3만 6,373.56톤, 도시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은 29.37%에 달했다. 매하구시의 생활쓰레기 총량은 14만 2,828.92톤이며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은 100%에 달했다.

농업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짚의 비료화, 사료화, 연료화, 기본재료화와 원료화 5화 리용 원칙에 따라 짚의 종합리용률을 전면적으로 높였다. 규모 사육장들에 모두 분뇨 저장 시설을 조립하여 건설했다. 집중 퇴비장 26개를 건설했는데 중소규모 사육장(가구), 방목 농가들의 분뇨 집중처리 사용된다. 사육 분뇨와 오염물을 생기는 축적 청소하여 지역내 수집, 운송, 저장 및 전환의 전

체 사슬 처리를 하도록 사육업 능가들을 독촉했다. 매하구시의 24개 향진(가두)에 포함 299개의 촌급 회수점을 설립하여 농약 포장 폐기물 회수 처리를 질서있게 전개했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일체화 정리운송 처리 체계를 구축했는데 현재 전 시의 생활쓰레기 매일 발생량은 약 400톤이며 안전처리율은 100%에 달한다.

대상건설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다. 2023년 6월,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대상이 합동 발전을 실현하여 매하구시, 휘남현, 류하현의 생활쓰레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생활쓰레기 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무폐도시' 건설을 조력하고 있다. 위험폐기물 종합리용 대상건설을 추진하여 관할구역내 위험폐기물 종합리용률을 제고시켰다. 한편 정맥산단단지를 건설하여 순환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매하구시는 '무폐도시' 건설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게 된다. 집행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고체폐기물의 정보화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목적성 있게 중점 대상건설을 추진하고 고체폐기물 종합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제고시켜 녹색 친환경 저탄소의 매하구시 발전 및 고품질 선형시범구 건설을 조력하게 된다.

/ 유경봉기자 / 사진 왕요휘

연변, 양로봉사 추진해 행복한 로후 보장

최근년간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로인들을 위한 봉사에 중시를 돌려 건강양로, 문화양로 등에 초점을 맞춘 농촌 로인 정원경제 발전 '의료와 양로 통합, 건강과 양생 통합' 체계 구축, 문화체육활동 전개 등 조치로 전 주 로인들이 행복하게 만년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최근, 주 및 연길시 '로인배려 지혜생활' 과학보급 활동이 연길시 공월가두 원진사회구역에서 열렸다. 활동에서 은행 사업일군들은 로인들을 위해 전신사기 예방 및 금융 지식을 알려주고 사기방지 의식을 높여 주었다. 또한 사회구역 병원과 중의들은 로인들을 위해 무료진찰, 혈당과 혈압 측정, 중의 맥진 등 봉사를 제공했다.

최근년간, 연변에서는 로인들의 건강양로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의료와 양로를 통합하고 재활양로를 재택양로로 연장하며 로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조직하고 건강서류를 건립했다. 또한 로인자원봉사대를 건설하여 거동이 불편한 로인과 독거로인을 도와주며 과학적인 로후상식을 보급하고 로후 사기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로인들의 자기보호 능력을 높였다. 연길정만당양호원 등 '의료와 양로 결합' 시범단위를 건설하고 왕정현 대전촌에서 '건강양생봉사' 시범사업을 전개하며 변경 현, 시 13개 촌을 조직하여 '락령(乐龄) 동반 농촌 독거로인 배려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연변의 의료와 양로의 통합, 강양봉사 사업의 발전을 추진했다. 동시에 238개 사회구역 일간돌봄실과 1,051개 농촌양로봉사위원의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관리봉사 수준을 제고했다.

연변의 향진, 촌론 로인협회는 과학기술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현지의 지리적 우세와 자연환경을 리용하여 로인들이 축산, 목이버섯 등의 산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의

독거로인, 장애로인, 치매로인 등 특수계층의 토지를 집중하여 농업합작사를 설립하고 토지면적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고 배당금을 나누어주어 공동 부유를 촉진했다. 농촌 로인들을 조직하여 정원경제를 힘써 발전시키고 농촌 인터넷 전자상거래 봉사소에서 유기농, 무공해 농수산물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늘렸으며 로인들이 누려야 할 각종 우대정책 보조금을 확보하여 로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빈곤해탈 성과를 공고히 했다.

연변에서는 로인들의 문화체육활동을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연변의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되었다. 전 주 로인문예공연, '연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인단체 회갑잔치' 등 행사를 펼쳐 로인들에게 풍채를 뽐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었다.

이외 게이트볼, 당구, 탁구, 태극권 등 다양한 스포츠가 로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길시 광장공인턴, 돈화시 기공체육팀, 룡정시 게이트볼팀, 도문시 장고춤팀, 안도현 태극권팀, 왕정현 소프트파워볼팀 등 로인문체팀은 전국, 전성 대회 또는 공연에서 각종 메달과 표창을 받았다. 현재 전 주에는 300여개의 로인예술단체가 있으며 각종 문화, 오락, 스포츠 활동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로인이 10만여 명에 달한다.

로인들의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표준화 로인활동장소 건설에 힘썼다. 현재 총면적이 16만여평방미터에 달하는 실내 활동실과 156개 고표준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을 포함한 야외활동장소, 스포츠기구 1만 4,592세트, 문예도구 1만 8,476점, 음향설비 1,440세트, 각종 서적 109만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주 대부분의 향진, 촌론에 이미 문화양로원, 문화광장, 농가서숙을 건설했다.

/ 길림일보

경성촌 제 7진 '길림성민족단결진보시범단위'로



일전,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는 안도현 석문진 경성촌에 제 7진 '길림성민족단결진보시범단위' 현판을 수여하고 경성촌의 민족단결진보사업에 대해 공평했다.

석문진 경성촌은 안도현 동부에 위치해있으며 교통이 편리하다. 촌에는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학습교육기지가 있다. 촌의 여러 민족 군중들은 석문진 당위, 정부의 인솔하에 힘을 합쳐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게 활소, 돼지 사육 등 대상을 실시하고 쌀가공산업을 돌려싸고 '전문가 + 합작사 + 농가'의 발전 모식을 적극 모색하며 '백년경성' 입쌀 브랜드를 구축하여 입쌀의 부가가치를 제고했다.

년간 60만키로그램 량질의 입쌀을 생산하고 480만원의 생산액을 올려 여러 민족 군중들의 소득을 증가하고 차부하도록 이끌었다. 경성촌은 선후로 전 성 민족단결 '쌍심쌍백' 선진단위, 전 주 당건설 선진단위, 빈곤퇴치 난관들과 선진집단 등 영예칭호를 수여받고 안도현을 대표하여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성, 주 당위, 정부 및 단위의 주요 지도자의 조사연구 지도를 받았다.

경성촌은 석문진의 민족단결진보 추진 사업의 축소판일 뿐이다. 최근년간 안도현 석문진 당위, 정부는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발전 기회를 다 잡고 전 진의 여러 민족 군중을 인솔하여 단결, 진보하고 착실하게

분투하며 '1촌 1품' 특색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경성촌의 벼, 복산촌의 유기농 과일과 채소, 중평촌의 황소, 당나귀 사육 등 특색 농업산업은 점차 촌민들의 소득과 산업 효과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경로로 되었다.

군중을 인솔하여 '돈주머니'를 부풀리는 동시에 석문진은 적극적으로 자금 대상을 쟁취하여 로화 된 도로를 승급, 개조하고 화장실을 개조하며 복화, 미화 등 기초시설 대상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주택환경을 부단히 개선했다. 현재까지 23.67키로미터에 달하는 도로, 17.29키로미터에 달하는 배수로를 개조하고 756개의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다.

이외, 석문진은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할 데 관한 선전, 교육을 깊이 전개하고 선진, 강연에 관한 사업계획을 제정하며 당원간부들을 조직하여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문술을 전면적으로 학습하여 여러 민족 군중들의 '5가지 인정'(五个认同)을 끊임없이 증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위치에 선전 전사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당의 민족정책과 법률법규를 널리 선전하여 민족단결식에 대한 군중들의 인지도를 부단히 제고시켰다.

/ 정현관기자 / 사진 안도현당위 선전부

장춘궈도교통 6 호선 정식 개통



4년 7개월의 건설을 거쳐 장춘궈도교통 6 호선이 3월 28일에 정식으로 개통되었다. 이는 장춘궈도교통 제 3기 건설 계획중 처음으로 개통되어 운영되는 지하철 로선이다. 현재 장춘궈도교통 운영로선은 6 개로 늘었으며 운영거리도 원래의 111.2키로미터에서 140.8키로미터로 늘어났다.

로해에 따르면 장춘궈도교통 6 호선은 봉사시설 면에서 비교적 큰 제고를 가져왔다. 공공구역 화장실의 유효 사용면적을 한층 늘이고 대기석의 좌석수도 증가한 동시에 환승역에 환승승강기를 설치하여 무장애 환승을 실현했다.

한편, 장춘궈도교통 6 호선은 22개의 지하철역과 9개의 환승역을 설치하고 장춘시 남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하철 로선으로 서부신도시, 남부신도시와 정월고신구를 연결한다. 장춘궈도교통 6 호선의 개통으로 장춘 시민들의 출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 정현관 류향휘 기자